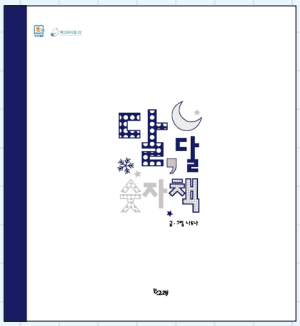


달, 달 숫자책

글 · 그림 나두나 / 책고래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그림책,
숫자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1부터 12까지 숫자를 만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제목만 보아서는 여느 숫자 공부책을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책을 펼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과는 '다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 안에 구름이 들어 있고,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지요. 작가는 숫자에 일 년 열두 달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1월, 2월, 3월, 4월 … 시간이 빚어내는 풍경, 계절의 변화를 기하학적이면서도 심플한 그림으로 표현하였어요. 그런가 하면 일 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따뜻하고 리드미컬한 글로 나타냈어요. 조근조근 말을 건네듯 열두 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달, 달 숫자책》을 보고 있으면, 문득 고요한 우주 어느 이름 모를 별에 도착해 있는 듯합니다.

독후 이해 활동

Q [달, 달 숫자책]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읽어보세요.

일	이		사		육
하나		셋		다섯	
	팔		십	십일	
일곱		아홉			열둘

Q [달, 달 숫자책]을 읽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나 내가 태어난 계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책 속 표현처럼 숫자로 표현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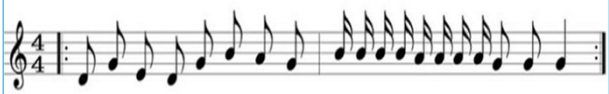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다음은 숫자와 관련된 노래입니다. 따라 부르면서 숫자들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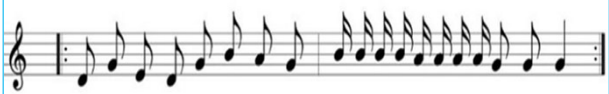
숫자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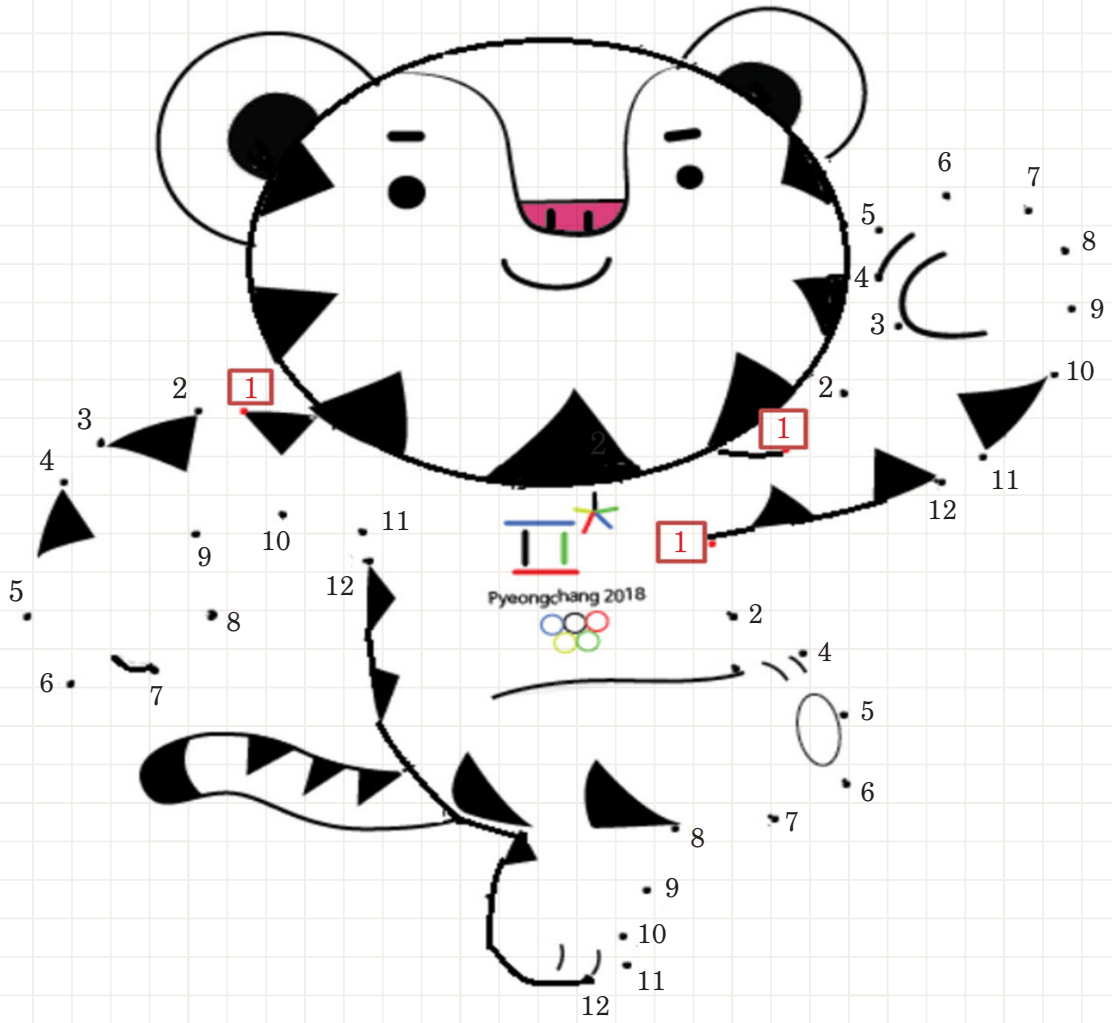
1 일초라도 안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 삼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이야이야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육십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 칠럭키(lucky)야
사랑해 요기조기 한눈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 매일 보여줘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9 구해줘 오 내 마음
10 십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 맘 변치 않을게 ~

잘잘잘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를짚는다고잘 잘 잘
둘 -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판다고 잘 잘 잘
셋 -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 잘 잘
넷 - 하면 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 잘 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줍는다고잘 잘 잘



여섯 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 잘 잘
일곱 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벤다고 잘 잘 잘
여덟 하면 엿장수가 호박엿을판다고 잘 잘 잘
아홉 하면 아버지가 신문을 본다고 잘 잘 잘
열 - 하면 열무장수 열무가왔다고 잘잘잘(열무사려!)

Q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입니다. 1부터 12까지의 숫자들을 차례대로 연결하여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1 -2-3-4-5-6-7-8-9-10-11-12 순서대로 연결하세요)